

결 정

2018 - 101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12월 12일자 D3면 「중장년층 건강, 경동맥 혈관벽 두께에 달렸다/혈관벽 두께 줄여주는 특허받은 칸타로프 멜론 추출물」 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2월 19일자 별지섹션 (「라이프 트렌드/푸드」) 9면 「칼로리 넘쳐도 영양은 불균형...내게 필요한 균형 영양식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朝鮮日報)=

중·장년층 건강, 경동맥 혈관벽 두께에 달렸다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균형 영양제는 5000여 가지의 영양 성분... 특허받은 칸타로프 멜론 추출물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 『대사증후군』 1000명 시대-건강 지키기

(중앙일보)=

칼로리 넘쳐도 영양은 불균형... 내게 필요한 균형 영양식은?

균형 잡힌 영양식 필요 요즘처럼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엔 '영양실조'라는 말이 어색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의 '배부른 영양실조'에 해당한다. 칼로리는 높아졌는데 특정 영양소가 결핍된 '배부른 영양실조'에 걸려서다. 같은 배에 음식이 차곡차곡 쌓여도 '배부른 영양실조'를 의심해볼 수 있다. 식사량이 적더라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in@in@in@in.com

우리 국민의 영양 흡수는 **영양실조**로 인한 저자극성 영양 결핍과 고에너지 밀도 식품을 대량으로 섭취해 **직접 열량** 2000kcal, 간접 열량 2000kcal로 총 4000kcal에 달하는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 이는 2000kcal의 열량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열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이는 **과다 영양**을 나타내며, 이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과다 영양**은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과다 영양**은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과다 영양**은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배부른 영양실조**는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朝鮮日報와 중앙일보는 건강을 주제로 ‘칸탈로프 멜론’과 균형잡힌 영양식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朝鮮日報는 급격한 체중증가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던 40대 직장인이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로 만든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을 섭취해 건강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제품 사진도 게재했으며, 제품 구입 및 문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이벤트 행사도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배부른 영양실조’가 늘고 있다며 균형 영양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식품기업인 대상(주)의 균형영양식 ‘뉴케어’를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비타민 13종, 미네랄 9종이 들어가 식품안전에 민감한 환자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제품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